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복수표지 번역 전략 연구

황경진(고려대학교)

1. 서론

언어 간 번역은 종종 각 언어의 문법 구조의 복잡성과 고유한 특징을 드러낸다.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번역에 있어 이러한 구조 중 하나는 명사에서 복수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복수표지이다. 언어 간 복수형 번역은 특히 관련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군에 속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 체계가 현저히 다른 두 언어인 스페인어와 한국어에서 복수 접미사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와 스페인어 간 복수표지 번역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로망스 어족인 스페인어는 가산 명사 뒤에 ‘-(e)s’의 복수표지 형태소를 통해 복수임을 나타낸다. 음성 실현 환경에 따라 ‘-ces’가 붙기도 하고 아예 안 붙고 관사를 통해 나타내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라 헨떼(la gente)’와 같은 집합명사의 경우 단수로 쓰이지만, 복수인 대상들을 나타내는 명사도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어는 복수 표시인 ‘-들(-deul)’¹⁾을 사

1) 한국어 복수표지 형태소 ‘-들’은 명사, 부사, 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등에 붙어 사용되기 때문에 그 품사에 대해 의존 명사로 보는 의견, 파생 접미사로 보는 의견, 특수 조사로 보는 의견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황아영, 2011). 이에 대해 아직도 많은 논쟁이 있는바, 본 연구는 간단히 복수표지 ‘-들’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용하는데, 이는 스페인어에서의 복수 표시와 같이 의무적으로 표기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도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규칙적이지 않아 이에 관련된 문법 범주가 명확히 자리 잡고 있지 않다(황아영, 2011, p. 1).

이러한 두 언어의 복수표지 사용의 차이는 번역가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안겨준다. 번역가는 복수형을 규정하는 문법 규칙과 복수형이 언제,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표현되는지 안내하는 사회언어학적 뉘앙스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특히 스페인어에서 복수 명사가 모두 한국어에서 명시적인 복수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스페인어와 한국어 간의 복수표지 번역은 더 복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페인어와 한국어 간의 복수표지 번역 전략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스페인어의 언어 구조와 실제 번역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양 언어의 복수표지 번역을 유형화하여 한국어-스페인어 및 스페인어-한국어 번역가에게 복수표지 번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복수표지 사용

한국어와 스페인어 모두 복수형을 나타내는 복수표지가 있으나 그를 언제 유효적으로 명시하여 나타내는지에 대해선 복수표지에 대한 깊은 의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선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복수표지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언제 그를 명시하여 나타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한국어 복수표지 ‘-들’

한국어의 복수표지 ‘-들’은 스페인어의 복수표지와 달리 그 사용에 대해 명확히 정의된 규범이 없는데, 오랫동안 연구됐다. 복수표지에 관해 처음 연구한 최현배(1937)는 ‘-들’을 복수를 나타내는 뒷가지(접미사)와 나머지를 열거하지 않고 나타나는 독립씨(명사)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초기에는 한국어 복수표지의 문법 범주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뤄졌고 2000년대 들어

의미상의 논의도 많이 이뤄졌다. 이러한 의미상의 논의는 곧, 복수표지를 유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와 드러내지 않는 경우의 차이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전영철(2004)에 따르면 ‘-들’을 쓰는 형태와 쓰지 않는 형태가 의미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의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한다고 한다. 곽은주(2003)의 경우 복수 개체를 합과 집단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 Landman(1989) 제안을 토대로 ‘-들’ 복수형은 합의 형태를, 쓰지 않는 경우는 집단 해석을 취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백미현(2002)은 한국인에게는 복수의 개체들이 존재하더라도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는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더 자연스러운 무표형의 복수표지이며 ‘-들’을 표시하는 것은 복수 개체 각각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전영철(2007)은 ‘-들’ 복수형은 합을, 쓰지 않는 경우는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먼저 ‘체언 + -들’의 구조에서 ‘-들’은 직접 복수표지로, 그 외의 성분에 함께 쓰인 복수표지 ‘-들’은 간접 복수표지로 규정하여 복수표지 ‘-들’이 쓰이는 경우 부착된 성분의 복수성과 배분성을 실현한다는 통합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강범모(2007)는 두 형태의 의미적인 차이는 없으며 복수표지 ‘-들’의 유효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복수 개체가 복수성임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화용론적인 쓰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한국어의 복수표지는, 스페인어와 달리 명사뿐만 아니라 부사, 조사, 연결어미 및 종결어미 등에 붙어 해당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3)과 같이 주어의 단/복수 여부는 불분명하고 목적어가 복수임을 나타낼 때도 있다.

- (1)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매우 똑똑합니다.
- (2) 가. 어서 공부들 하거라(명사류)
 나. 밥을 다들 먹었니? (부사류)
 다. 학교에서들 공부 잘했니? (조사류)
 라. 지나들 가는구나. (연결어미류)
 마. 밥은 먹었어들? (종결어미류)
- (3) 다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ChatGPT, DeepL, 네이버 파파고 및 구글 번역기와 같은 기계 번역기는 (1)을 제외한 (2)와 (3)과 같은 예시를 명확히 번역하지 못한다. ‘-들’이 어떠한 의미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은 먹었어?’을 ‘¿Has comido? (2인칭 단수형)’으로 번역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는 곧 한국어의 복수표지 ‘-들’의 정확한 번역을 위해선 깊은 의미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2.2 스페인어 복수표지 ‘-(e)s’

스페인어는 명사 뒤에 ‘-(e)s’의 복수표지 형태소를 통해 복수임을 나타낸다. 음성 실현 환경에 따라 ‘-ces’가 붙기도 하고 아예 안 붙고 ‘엘 빠라과스(el paraguas)(우산, 단수)’와 ‘로스 빠라과스(los paraguas)(우산들, 복수)’와 같이 관사를 통해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의미적으로 단수로 쓰이지만 복수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다. ‘라 헨떼’와 같은 집합명사가 그 예이다. 또한 단수의 의미지만 ‘꼬메스 띠블레스(comestibles)(식품품)’과 같이 항상 복수 형태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RAE(2010, p. 44)는 이러한 명사들을 ‘PLURALIA TÁNTUM’이라고 정의한다. 주로 식품과 관련된 명사, ‘피난사스(finanzas)’와 같이 돈과 관련된 명사, ‘모달레스(modales)’와 같이 예의 등과 관련된 명사, ‘아푸에라스(afueras)’와 같이 불특정한 장소와 관련된 명사, 내부 장기의 어떤 한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 와 같이 어떤 준비되거나 예견된 행위에 관련된 명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개 혹은 여러 개로 구성된 하나의 객체인 ‘비고테스(bigotes)(턱수염)’, ‘가파스(gafas)(안경)’와 같은 명사들 역시 하나의 객체를 가리키더라도 복수형으로 표기한다.

이처럼 스페인어의 경우 대부분의 복수 가산명사에는 복수표지를 표기한다. 이 규칙에 벗어나 의미상으로 단수지만 복수 형태로 쓰이는 경우 등이 있을지라도 몇몇 예외적인 상황으로 RAE(2010, p. 45)는 규정하고 있어 그 복수표지를 이해하고 번역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복수표지 번역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텍스트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자료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각각 번역된 문학작품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을 주요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들 작품은 각각의 언어에서 복수표지의 사용 및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방대한 텍스트를 제공한다. 특히, 원문과 번역본에서 등장하는 복수표지의 대응 양상, 번역 전략, 그리고 각 언어의 문법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문학작품의 분석은 양질의 문학적 텍스트에서 실제로 복수표지가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확인하고, 언어 간 복수표지 번역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또한 실용 텍스트에서의 복수표지 번역을 분석하기 위해 삼성 갤럭시 S24의 한국어와 스페인어 사용자 설명서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기술 문서는 주로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특성은 문학작품과는 다른 양상의 복수표지 사용 및 번역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미디어 자료로써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D.P.」와 「엘리트들(Élite)」, 「종이의 집(La casa de Papel)」의 자막 번역본을 활용하여 미디어 콘텐츠에서의 복수표지 번역 양상을 조사하였다. 자막 번역은 대화 중심의 텍스트로, 문학이나 기술 문서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복수표지가 번역된다. 각 드라마의 자막 번역본을 통해 한국어에서 스페인어, 스페인어에서 한국어로의 복수표지 번역에서 어떤 전략이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황경진(2024)의 한국어-스페인어 기계 번역 평가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기계 번역 시스템에서 복수표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한국어-스페인어 간 복수표지 번역의 다양한 양상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문학, 기술 문서, 미디어 텍스트, 기계 번역의 각 텍스트 장르에서 발견된 복수표지 번역의 공통된 특징과 차별적 요소를 기반으로 번역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복수표지 번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패턴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였으며, 번역자가 복수표지 번역 시 참고할 수 있는 번역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어와 스페인어 간 복수표지 번역의 복잡성을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탐구하고자 한다.

4. 분석 결과

본 연구는 한국어와 스페인어 복수표지 번역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하나는 일반적인 복수표지의 사용으로,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복수표지 사용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상호 번역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예외적인 복수표지의 사용으로, 한국어나 스페인어에만 있는 특수한 복수표지 사용을 유형화하여 상호 번역 방안을 분석하였다.

4.1 일반적인 복수표지의 사용

본 연구는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일반적인 복수표지의 사용을 크게 명사의 복수성과 복수표지, 그리고 주어의 복수성과 복수표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4.1.1 명사의 복수성과 복수표지²⁾

- 2) 스페인어에서 불가산명사의 복수성을 표현할 때는 ‘dos copas de agua’와 같이 단위 명사를 활용하여 복수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물들’과 같은 형태보다는 ‘물 두 잔’과 같이 단위 명사를 동반하여 복수성을 표현한다. 스페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산 명사를 단위 명사로 사용하며, 복수일 때 항상 복수표지를 부착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단위 명사 앞에 숫자가 함께 사용됨으로써 복수표지가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단위 명사를 통한 복수성 표현은 가산 명사의 복수성을 나타내는 원리와 유사한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가산명사의 복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루지 않으며, 본 연구의 논의는 가산 명사의 복수성 분석만 진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 <예시 1>과 같이 가산명사의 복수성을 나타낼 때 한국어는 복수표지를 항상 쓰지 않고 스페인어는 항상 복수표지를 사용한다.

<예시 1>

한국어: 학업과 특별활동에서 특별활동은 많을수록 좋아.

스페인어: Escolares y extraescolares, cuantas más extraescolares, mejor.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대상 문헌에서 한국어에서도 복수표지로 번역된 예시를 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예시들은 모두 복수표지 ‘-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복수표지 ‘-들’을 제외해도 전혀 어색한 문장이 되지 않는다. 이는 곧 많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복수표지 ‘-들’이 문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며 어떤 의미적인 차이를 도출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예시 2>의 경우 극의 흐름을 보면 화자가 이미 청자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가지고 있음이 언급되었다. 따라서 ‘내가 가진 데이터만으로 너의 프로필을 완성할 수 있었어’로 번역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화자가 청자에게 청자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있음을 강조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예시 3> 역시 마찬가지로 극의 흐름을 보면 화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개개인이 각자 이것저것 하고 다닌다는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게다가 다 이것저것 하고 다니고요’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복수성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시 2>

한국어: 내가 가진 데이터들만으로 너의 프로필을 완성할 수 있었어.

스페인어: Todos los datos que tenía han bastado para completar tu perfil.

(「엘리트들(Élite)」 시즌 1, 4화 중)

<예시 3>

한국어: 게다가 다들 이것저것 하고 다니고요.

스페인어: Además, aquí todos llevan cosas.

(「엘리트들(Élite)」 시즌 1, 4화 중)

한편, 아래 <예시 4>의 경우 해당 문장 이후 소개되는 것들이 여러 개이

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소개합니다’가 아니라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합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후 소개될 것들이 복수임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예시 5>와 <예시 6>의 경우 각각 ‘다른 삼성 헬스 사용자와 걸음 수를 비교하고...’로 번역하거나 ‘입력 가능한 추가 문자는...’이라고 번역해도 쉽게 복수성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복수표지 ‘-들’과 함께 쓰으로써 다른 복수의 삼성 헬스 사용자와 함께 비교할 수 있고, 입력한 추가 문자가 여러 개임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시 4>

한국어: 이 사용 설명서에서는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합니다.

스페인어: Los iconos que aparecen en la tabla son los más comunes.

(「삼성 갤럭시 S24」 매뉴얼 중)

<예시 5>

한국어: 투게다: 다른 삼성 헬스 사용자와 걸음 수 기록을 비교하고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Retos: compare sus registros de recuento de pasos con los de otros usuarios de Samsung Health o compita con sus amigos.

(「삼성 갤럭시 S24」 매뉴얼 중)

<예시 6>

한국어: 입력 가능한 추가 문자들은 자판 상단에 팝업 창으로 나타납니다.

스페인어: Aparecerá una ventana emergente sobre el teclado que muestra los caracteres disponibles.

(「삼성 갤럭시 S24」 매뉴얼 중)

결론적으로, 스페인어는 가산 명사의 복수성을 나타낼 때 항상 복수표지를 유효적으로 나타내지만, 한국어는 복수표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복수표지 ‘-들’이 유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백미현(2002)과 전영철(2007)이 주장한 바와 같이 부착된 성분의 복수성과 배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가산명사를 번역할 때, 한국어에선 복수표지가 쓰이지 않았지만, 문맥상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 스페인어

에서는 복수표지를 써야 할 때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스페인어의 복수표지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문맥상 명사의 복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역시 번역에 유의해야 한다.

4.1.2 주어의 복수성과 복수표지

한편, 한국어의 복수표지 ‘-들’은 명사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품사와 함께 쓰인다.

(2) 가. 어서 공부들 하거라. (명사류)

나. 밥을 다들 먹었니? (부사류)

다. 학교에서들 공부 잘했니? (조사류)

라. 지나들 가는구나. (연결어미류)

마. 밥은 먹었어들? (종결어미류)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텍스트에선 (2나)와 같은 부사류에 복수표지가 함께 쓰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현상이 관찰되진 않았다. 그러나 한국어의 문학작품이나 구어에서 위와 같은 현상이 종종 관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 (2)의 예시는 모두 각 서술어의 주어의 복수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복수표지 ‘-들’을 제외하면 각각의 주어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우선, (2가)의 경우 일반적인 사용과 같이 명사 뒤에 복수표지가 함께 쓰였지만, ‘공부’라는 명사는 불가산명사이며 일반적으로 단수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목적으로 쓰인 해당 명사의 주어의 복수성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서 공부 하거라’와 같이 쓰이면 공부를 하는 주체가 단수로 해석되기 쉬우며 ‘-거라’의 어미가 명령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로 해석되기 쉽다. 한편, (2나), (2다), (2라), (2마) 역시 각각 ‘밥을 다 먹었니?’, ‘학교에서 공부 잘 했니?’, ‘지나가는구나’, ‘밥은 먹었어?’로 쓰이면 그 주어의 단/복수성이 모호해진다.

따라서 다양한 품사와 함께 쓰인 복수표지의 경우 그 품사의 복수성보다 해당 문장의 주어의 복수성을 나타내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의 주어는 영어 등과 달리 항상 쓰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언어학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스페인어로 번역할 때, 문맥에 따른 문장의 주어를 찾아 그 복수 주어를 유표적으로 나타내거나, 스페인어 역시 주어가 항상 의무적으로 표기되는 언어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복수형 동사 인칭 변화를 사용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위의 예시를 분석해 볼 때, 일반적으로 한국어 복수표지는 전영철(2007)의 주장과 같이 복수표지의 유표성을 부착된 성분의 복수성과 배분성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추가로 명사 외의 다른 품사에 복수표지가 부착된 경우, 그 문장의 주어의 복수성과 배분성을 실현한다는 관점으로 번역해야 한다.

4.2 특수한 복수표지의 사용

본 연구는 분석 대상 텍스트에서 관찰된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특수한 복수표지의 사용을 크게 집합명사와의 사용, 신체 부위와의 사용, 일반적인 대상을 함축하는 비유 표현, 고유명사와의 사용, 그 외의 특수한 사용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4.2.1 집합명사

RAE(2010, pp. 213-215)에 의하면 집합명사란, ‘파밀리아(familia)’ 등과 같이 사람, 동물, 또는 사람의 동질적인 집합을 단수형으로 나타내는 명사를 의미한다. 이 명사들은 주로 단수형으로 사용되지만, 그 안에 여러 개체가 포함된 개념을 표현한다. 이러한 집합명사는 주로 단수로 사용되지만, 그 의미에서 복수적인 개념을 내포할 수 있다. ‘Toda la familia iba de compras’가 ‘가족 전체가 휴가를 갔다’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

한편, 전영철(2015)은 한국어의 집합명사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집합 자체로만 해석되는 ‘위원회’와 같은 집합명사다. 이들은 개별 구성원들을 나타내지는 않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는 의사 집합명사로, ‘가족’과 같이 개별성과 집합성을 모두 가진 명사가 해당한다. 세 번째는 보통 명사로 ‘경찰’과 같이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개체를 나타내지만, 상황에 따라 집합을 나타낼 수도 있는 명사를 의미한다.

RAE(2010)가 정의한 스페인어의 집합명사는 일반적으로 전영철(2015)이

정의한 집합명사의 세 유형 중 대부분 의사 집합명사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텍스트에서 스페인어의 집합명사는 모두 단수 동사와 함께 쓰였다. 그리고 한국어로의 번역도 대부분 아래 <예시 7>과 같이 단수형으로 번역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스페인어의 집합명사와 한국어의 의사 집합명사는 대부분 단수로 쓰이며 상호 번역 시에도 단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예시 7>

한국어: 내 친구한테 접근하지 마 기침약도 주지 마. 안 그러면 너희 가족이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알게 될 거야

스페인어: Como te vuelves a acercar aunque sea para darle una pastilla para la tos, te juro que tu hermana, tu madre, tu padre y toda tu puta familia va a saber lo que haces.

(『엘리트들(Élite)』 시즌 1, 3화)

한편, 집합명사로 분류되진 않지만, 한국어와 스페인어 모두 보통 명사가 때로는 개별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집합을 나타내는 경우가 존재한다. 우선 한국어, 스페인어 모두 경찰이 그에 해당한다. 아래 <예시 8>에선 한국어와 스페인어 모두 개별로 인식하여 그를 번역하였으며 <예시 9>는 한국어와 스페인어 모두 집합으로 인식하여 상호 번역하였다. 그러나 <예시 10>은 스페인어는 복수로 쓰였지만, 한국어는 단수로 쓰였다. 백미현(2002)에 의하면 한국어의 경우 유정성(유정명사)³⁾이 있거나 맥락에 따라 복수성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복수표지가 생략되곤 한다. 이로 인해 한국어는 단수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어도 ‘엘 에스투디안테(el estudiante)’와 같이 명사에 유정성이 있는 경우 한국어와 같이 단수형이 개별을 나타내기도 집합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각자’나 숫자와 같이 개별성을 나타내는 문장 요소가 없는 한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복수표지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는 점(김소영, 2024, p. 386), 맥락상 복수성이 유추되면 역

3) 백미현(2002)에 의하면 유정성(animacy)은 한국어에서 복수표지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유정성은 생물적 생명체나 인지적 존재(사람, 동물 등)가 해당 명사의 주체일 때 복수표지를 더 명확히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성질을 뜻한다.

시 복수표지를 생략하는 점을 고려할 때 스페인어에서 보통명사가 복수로 쓰여도 단수로 번역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시 8>

한국어: 그 경찰이 내게 서류를 요청했다.

스페인어: Ese policía me pidió mis documentos.

<예시 9>

한국어: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필요하다면 경찰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딸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스페인어: Aureliano Segundo estaba dispuesto a rescatar a su hija, con la policía si era necesario...

(『백년의 고독』)

<예시 10>

한국어: 페르난다는 무장 경관이 호위하는 기차를 타고 마콘도로 돌아왔다.

스페인어: Fernanda regresé a Macondo en un tren protegido por policías armados.

(『백년의 고독』)

4.2.2 신체 부위와의 사용

한국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눈’, ‘귀’, ‘입’, ‘코’와 같이 신체 부위를 단수로 표현하는 반면, 아래 <예시 11>과 같이 스페인어의 경우 ‘로스 오호스 (los ojos)’와 같이 두 개 이상일 때 복수로, ‘라 보까(la boca)’와 같이 한 개면 단수로 표현한다.

<예시 11>

한국어: 영리하고 슬픈 눈, 마치 너무 많은 고통을 겪은 것처럼

스페인어: Ojos inteligentes y tristes como si hubiera sufrido demasiado.

(『오징어 게임』 시즌 1, 1화)

그러나 스페인어에서 복수형으로 쓰이는 신체 부위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선불리 복수표지 ‘-들’을 붙여 번역하면 아래 예시와 같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예시 12>

한국어: 수업이 많이 났네요.

스페인어: Tienes muchos bigotes. (황경진, 2024, p.55)

<예시 13>

한국어: 수업들이 많이 났네요.

스페인어: Tenéis muchos bigotes. (황경진, 2024, p.55)

<예시 12>의 경우 한 명의 사람인 ‘너’의 턱수염이 많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시 13>의 경우 여러 사람에게 그들 모두가 턱수염이 많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번역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아래 <예시 14>와 <예시 15>의 경우 스페인어에서 복수형으로 쓰인 ‘마노스(manos)’가 한 사람의 두 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을 의미하지만, 한국어에선 여전히 단수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여러 사람의 손을 의미하더라도 한국어에선 단수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예시 14>

한국어: 그때 온 집시들은 새로운 집시들이었다. 그들은 자기 나라말밖에 할 줄 모르는 젊은 남녀들로서, 매끄러운 피부와 고운 손은 아름다움의 표본이었다...

스페인어: Eran gitanos nuevos. Hombres y mujeres jóvenes que sólo conocían su propia lengua, ejemplares hermosos de piel aceitada y manos inteligentes...

(『백년의 고독』)

<예시 15>

한국어: 우리 손을 닦읍시다.

스페인어: Vamos a lavarnos las manos.

예외적으로, 아래 <예시 16> 및 <예시 17>과 같이 신체 표현으로 보이지만 한국어에서 ‘시신’이나 ‘총구’와 같이 신체 표현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신체 표현의 번역과는 다르게 이뤄져야 한다.

<예시 16>

한국어: 시체들은 똑같이 생긴 두 개의 관에 놓여졌는데...

스페인어: Los cuerpos fueron puestos en ataúdes iguales....

(『백년의 고독』)

<예시 17>

한국어: 그 순간 포연에 그을린 총구들이 그를 겨누었고...

스페인어: En ese instante lo apuntaron las bocas ahumadas de los fusiles...

(『백년의 고독』)

결론적으로, 스페인어는 한 사람의 신체 표현을 나타낼지라도 두 개 이상이면, 복수로 표현하고 하나인 경우는 단수로 표현하지만, 한국어는 항상 단수로 표현한다. 한국어는 여러 사람의 신체 부위를 나타낼지라도 ‘여러 사람의 눈’과 같이 단수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예외적으로 구어체의 경우, ‘뿔코들이 좀 뺨가지?’와 같이 신체 표현에 복수표지 ‘-들’을 사용할 수 있음을 번역 시 유의해야 한다.

4.2.3 일반적인 대상을 함축하는 비유 표현

원칙적으로 한국어와 스페인어 모두 고유명사는 복수 형태로 쓰일 수 없다. 그러나, 한국어는 고유명사가 일반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일반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데 쓰인다면 복수표지 형태소 ‘-들’이 함께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의 김연아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와 같이 ‘김연아’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 필적할만한 능력이나 업적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아니다. 그러나 아래 <예시 16>과 같이 스페인어에선 이런 용법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 번역에 유의해야 한다.

<예시 16>

한국어: 제2의 김연아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스페인어: Muchas personas talentosas como Yuna Kim practican mucho.

(황경진, 2024, p. 57)

스페인어에는 이와 비슷한 용법이 있다. ‘Hay muchos Goyas en esta escuela de arte.’가 그 예이다. RAE(2010, p. 220)에 따르면 한국어와 달리 ‘los goyas del museo’와 같이 한 사람과 관련된 물건이나 물질을 가리키는 경우 고유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문자를 쓰지 않고 복수형으로 쓴다. 이 경우, 아래 <예시 17>과 같이 ‘고야의 작품들’로 번역해야 하므로 번역에 유의해야 한다.

<예시 17>

한국어: 박물관 고야의 작품들은 매우 인상적이다.

스페인어: Los goyas del museo son muy impresionantes. (황경진, 2024, p. 57)

4.2.4 고유명사와의 사용

한편, RAE(2010, p. 220)에 따르면, 스페인어의 경우 사람의 성씨나 이름에 해당하는 고유명사가 그 가족이나 부부를 가리킬 때, 혹은 같은 성씨를 가진 여러 사람을 가리킬 때 복수 형태로 쓰이기도 한다. 한국어 역시 이름이나 성씨를 가진 여러 사람을 가리킬 때만 복수 형태로 사용한다. 아래 <예시 18>에서 한 반에 여러 명의 ‘은채’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때, ‘은채들’로 번역한 것이 그 예이다.

<예시 18>

한국어: 우리 반의 은채들은 똑똑해요.

스페인어: Las Eunchaes de mi clase son inteligentes. (황경진, 2024, p. 57)

한편, 스페인어는 한국어와 달리 성씨의 경우 ‘로스 피에로(los Fierro)’와 같이 앞의 관사만 복수 형태로 쓰고 고유명사는 단수 형태로 쓰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 역시 피에로(Fierro)라는 성을 가진 여러 사람을 가리키거나 <아래 19>와 같이 그 성을 가진 사람들의 가족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어에는 이러한 용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그 번역에 유의해야한다.

<예시 19>

한국어: 그 아우렐리아노들 가운데 몇은 안토니오 이사벨 신부의 술수를 한눈에 간파할 수 있을만큼 임기응변에 대단히 능했기 때문에...

스페인어: ... porque varios de los Aurelianos eran tan duchos encomponendas de galleras que descubrieron al primer golpe de vista las triquiñuelas del padre Antonio Isabel...

(『백년의 고독』)

4.2.5 그 외의 특수한 사용

그 외의 복수표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텍스트에서 관찰된 특수한 번역의 상황으로는 ‘사람들’과 ‘빠르소나스(personas)’가 있다. 전영철(2015, p. 801)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사람이 왔다’와 ‘사람들이 왔다’의 경우, 전자는 단복수를 모두 나타내며 후자는 화자의 의도나 문장 내의 다른 표현으로 개별화가 요구될 때 ‘들’이 부착된다고 한다. 한편, 스페인어의 ‘빠르소나(persona)’는 항상 단수를 나타내고, ‘빠르소나스’는 항상 복수의 사람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람들’과 ‘빠르소나스’의 번역은 아래 예시들을 기반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예시 20>과 같이 스페인어에선 ‘빠르소나스’라고 쓰였지만, 한국어에선 생략되어 번역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 원문에서는 ‘다양한 그림’을 통해 복수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나 스페인어로 번역될 때는 ‘오프라스 빠르소나스(otras personas)’라는 구체적인 주체가 추가되었다. 한국어는 명시적으로 사람이나 대상을 언급하지 않고도 맥락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Hwang과 Ladiere, 2013). 그러나 Ionin과 Montrul(2010)에 의하면 스페인어는 복수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기에 번역자가 ‘오프라스 빠르소나스’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를 통해 한국어에선 복수의 주체인 ‘사람들’이 맥락상 생략되었지만, 스페인어에서는 명시적으로 복수의 주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예시 21>과 같이 ‘사람들’과 ‘빠르소나스’를 상호 명시적으로 번역하는 예가 있다. 이 경우는 양쪽 언어에서 동일하게 번역되었는데, <예시 8>과 달리 ‘텔 빠이싸헤 오 데 빠르소나스(del paisaje o de personas)’로 대조가 되는 명사가 있어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예시 22>의 경우, 한국어에서 복수표지와 함께 쓰인 ‘사람들’이 스페인어에서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단수 명사로 번역되었다. 이는 곧 스페인어에서 특정한 맥락에서는 그 맥락적 의미에 따라 다른 단어로 번역하는 전략을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예시 20>

한국어: PENUP: 다양한 그림을 감상하고 유용한 드로잉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PENUP: publique sus creaciones, consulte las de otras personas y obtenga consejos útiles sobre cómo dibujar.

(「삼성 갤럭시 S24」 매뉴얼 중)

<예시 21>

한국어: 더 넓은 배경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담긴 셀피를 촬영하려면 * 아이콘을 누르세요.

스페인어: Para hacer selfies con una panorámica del paisaje o de personas, pulse *.

(「삼성 갤럭시 S24」 매뉴얼 중)

<예시 22>

한국어: 영상 통화 중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카메라를 끕니다.

스페인어: Durante una videollamada, apaga la cámara para que el interlocutor no pueda verle.

(「삼성 갤럭시 S24」 매뉴얼 중)

결론적으로, ‘사람들’과 ‘빠르소나스’의 경우 번역가가 맥락에 따라 한국어에서 ‘사람들’이 생략되었지만, 스페인어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상호 명시적으로 번역하거나 맥락상 다른 단어로 번역할 수 있기에 번역 시 유의해야한다.

또 하나의 특수한 사용으로는 스페인어의 경우 ‘PLURALIA TANTUM’이라는 명사의 유형이 있다. RAE(2010, p. 44)에 의하면 이러한 명사는 일반적이고 관습적으로 복수형으로 쓰이는 명사로 단수형으로는 쓰이지 않는 명사이다. 주로 음식, 돈과 관련된 명사, 예의 등과 관련된 명사, 불특정한 장소와 관련된 경우, 내부 신체 장기의 어떤 한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와 관련된 명사 등과 같이 다양한 개념들과 연관되어 있다. 아래 예시에서 보듯 대부분의 이러한 스페인어 명사들은 한국어로 번역될 때 단수로 번역되었기에, 이 역시 번역가가 유의하여 번역해야 한다.

<예시 23>

한국어: 탐험에 나섰던 사내들은 그 습기와 정적으로 이루어진, 원죄 이전의 낙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기름 웅덩이에 발이 빠지고, 마체페로 핏빛 나리꽃과 황금빛 도마뱀을 토막내면서 태고의 기역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고 느꼈다.

스페인어: Los hombres de la expedición se sintieron abrumados por sus recuerdos más antiguos en aquel paraíso de humedad y silencio, anterior al pecado original, donde las botas se hundían en pozos de aceites humeantes y los machetes destrozaban lirios sangrientos y salamandras doradas. (『백년의 고독』)

<예시 24>

한국어: 이마에 재의 십자가를 달고 있던 아우렐리아노 뜨리스페는 마을 외곽 지역에 호세 아르까디오 부엔디아가 발명가적 정신착란 상태에서 꿈꾸었던 얼음 공장을 세웠다.

스페인어: Aureliano Triste, con su cruz de ceniza en la frente, instaló en las afueras del pueblo la fábrica de hielo con que soñó José Arcadio Buendía en sus delirios de inventor. (『백년의 고독』)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복수표지의 사용과 그에 따른 번역 전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복수표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선 일반 명사의 경우 한국어는 복수표지 ‘-들’의 사용이 선택적이며 문맥을 통해 복수성이 유추되는 경우 그를 생략한다. 반면, 스페인어는 가산 명사의 경우 복수성을 항상 드러낸다. 따라서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할 때 복수표지가 생략되었다라든 문맥상 복수성으로 판단된다면 복수형으로 번역해야 한다. 반대로 스페인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문맥을 통해 복수성이 유추되거나 개별성이 강조되지 않는 경우는 단수로 번역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복수표지가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집합명사와의 사용, 신체 부위와의 사용, 일반적인 대상을 함축하는 비유 표현, 고유명사와의 사용, 그 외의 특수한 사용으로 나누어 그 번역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집합명사의 경우 스페인어의 집합명사는 주로 단수형으로 쓰이지만, 복수적 의미를 내포한다. 한국어에서도 집합명사는 상황에 따라 단수로 사용되며 복수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스페인어와 한국어는 집합명사를 상호 번역할 때 일반적으로 단수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신체 부위의 경우 스페인어는 신체 부위를 표현할 때 두 개 이상이면 복수형, 하나면 단수형을 사용한다. 반면, 한국어는 신체 부위를 단수로 표현한다. 따라서 신체 부위를 상호 번역 시 스페인어에서 복수형으로 쓰이는 신체 부위를 한국어에선 단수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일반적인 대상을 함축하는 비유 표현에 관하여, 한국어는 ‘제2의 김연아들’과 같이 고유명사와 복수표지가 함께 쓰여 해당 명사와 비슷한 특징이나 성질을 가진 사람들을 나타낸다. 그러나 스페인어에서는 이러한 용법은 쓰이지 않는다. 반면 스페인어는 ‘로스 고야스(*los goyas*)’가 ‘고야의 작품들’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해당 명사와 관련된 물건이나 물질을 가리킬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상호 번역 시 적절한 명사를 추가하여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고유명사 사용의 경우, 스페인어와 한국어 모두 성씨나 이름을 복수형으로 사용하여 같은 성씨나 이름을 가진 여러 사람들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스페인어의 경우 성씨를 복수형으로 사용하여 가족을 나타낼 수 있는데 한국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명사 등을 추가하여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지막으로 그 외의 특수한 복수표지 사용의

경우, 스페인어에서 ‘PLURALIA TÁNTUM’으로 분류되어 항상 복수로 쓰는 명사들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할 때 주로 단수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사람들’과 ‘빠르소나스’의 경우 한국어에선 생략되고 스페인어에선 ‘빠르소나스’로 번역되거나, 상호 1:1로 번역되거나, 스페인어에서는 구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다른 명사로 번역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 자료가 문학작품, 기술 문서 및 영상 자료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텍스트와 상황에서의 복수표지 사용의 전반적인 양상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1:1 번역의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다 보니 각 언어의 문법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다양한 사용에서의 복수표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번역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다양한 텍스트와 상황에 관한 연구로 확장될 수 있으며 기계 번역에서의 복수표지 처리에 관한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넷플릭스. (2021). 오징어 게임 [비디오]. <https://www.netflix.com/kr/title/81040344>
- 넷플릭스. (2021). D.P. [비디오]. <https://www.netflix.com/kr/title/81280917>
- 넷플릭스. (2018). Élite [비디오]. <https://www.netflix.com/kr/title/80200942>
- 넷플릭스. (2017). La casa de papel [비디오]. <https://www.netflix.com/kr/title/80192098>
- 삼성전자. (2024. 7. 9). 사용 설명서. <https://bitly.cx/gcSn>
- 삼성전자. (2024. 9. 19). GUÍA DE USUARIO. <https://bitly.cx/7NbInc>
- Gabriel García Marquez. (1967). *Cien años de soledad*. Secretaría de Educación. <https://bitly.cx/jdKLB>
- Gabriel García Marquez. (2000). 백년의 고독 1 (조구호 번역). 민음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67)

Gabriel García Marquez. (2000). 백년의 고독 2 (조구호 번역). 민음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67)

<2차 자료>

- 강범모. (2007). 복수성과 복수 표지: '들'을 중심으로. 언어학, 47, 3-31.
- 곽은주. (2003). Interpretations of Plural Noun Phrases in Korean. 언어학, 35, 3-39.
- 김소영. (202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수분류사 구문의 수사 제약에 따른 한국어 복수 표지 습득. 언어연구, 39(4), 385-402.
- 백미현. (2002). 한국어 복수 의미 연구. 담화와인지, 9(2), 59-78.
- 전영철. (2004). 한국어의 복수성과 총칭성/한정성. 언어와 정보, 8(2), 27-45.
- 전영철. (2007). 한국어 복수 표현의 의미론: '들'의 통합적 해석. 언어학, 49, 325-347.
- 전영철. (2015). 한국어 집합 명사와 복수 표지 '들'. 어학연구, 51(3), 793-814.
- 최현배. (1937). 우리말 본. 정음사.
- 황경진. (2024). 한국어-스페인어 기계 번역 평가 데이터 셋 구축과 활용.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황아영. (2011). 한국어 복수표지 '들'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Hwang, S. H., & Lardiere, D. (2013). Plural-marking in L2 Korean: A feature-based approach. *Second Language Research*, 29(1), 57-86.
- Ionin, T., & Montrul, S. (2010). The role of L1 transfer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with definite plurals in L2 English. *Language learning*, 60(4), 877-925.
- Landman, F. (1989). Groups, I. *Linguistics and philosophy*, 559-605.
- RAE. (2010).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A study on the translation strategies of plural markers in Korean and Spanish

Kyungjin Hwang (kjhwang0624@korea.ac.kr)

Department of Spanish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use of plural markers in Korean and Spanish, proposing strategies for their accurate and effective translation. In Korean, plural markers are used selectively, with context often implying plurality. In contrast, Spanish consistently uses explicit grammatical forms to mark plurality. Translators should address this difference by rendering implied plural markers in Korean into explicit plural forms in Spanish. Conversely, Spanish plural forms may sometimes be translated into Korean singular forms if the context permits. The analysis focuses on various cases, including collective nouns, body parts, metaphoric expressions, proper nouns, and other specialized usages. For instance, while both languages use singular collective nouns to imply plurality, body parts are generally pluralized in Spanish but singular in Korean.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ccurately capturing contextual nuances in both languages. However, the study has certain limitations. It examines only three text types—literary works, manuals, and media—and provides a limited analysis of grammatical and sociocultural influences. Despite these constraints, the findings offer valuable insights into the translation of singular and plural markers, laying the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particularly on the role of machine translation systems in addressing plural markers.

Keywords: Plural marker; Korean; Spanish; Korean-Spanish Translation; Spanish-Korean Translation

키워드: 복수표지, 한국어, 스페인어, 한서번역, 서한번역

황경진(<https://orcid.org/0009-0003-0779-6451>)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강사

kjhwang0624@korea.ac.kr

논문 투고일: 2024년 10월 2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11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12월 7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2월 14일